

■ 語文論文

## 『內訓』의 稀貴語에 대하여\*

李 善 英

(弘益大 敎授)

### 要約 및 抄錄

稀貴語는 中世國語 資料에서 唯一例 또는 두세 개의 例만 확인되는 語彙를 말하는데, 用例가 거의 없기 때문에 文脈에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며 語源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회귀어는 辭典에 登載되지 않은 예도 있고 사전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뜻이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다. 『내훈』은 成宗의 어머니인 仁粹大妃가 편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女性 敎化書로서 회귀어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내훈』의 여러 刊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인 蓬左文庫本을 검토하여, 單一語로, ‘다습, 水刺, 沈菜’, 派生語로 ‘씻기다, 감히다, 좌히다, 넘꽃다, 내노리히다, 飮食히다, 억제히다, 조닐이, 넘져이, 獨혀’, 複合語로 ‘묻값다, 질기꾼다, 불쁘되다, 좇드되다’, 連語 構成으로 ‘우름 내다, 마시 사오납다, 羹을 고르다, 水刺 서시다, 病이 되다, 혼 바를 이치다’ 등을 살펴보았다.

※ 핵심어 : 內訓, 稀貴語, 中世國語, 語彙場, 單一語, 派生語, 複合語, 連語

### I. 序 論

中世國語 語彙에는 ‘집, 밥, 가다’처럼 현대국어에서도 같은 형태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뛰다, 물’처럼 의미는 유사하나 형태가 변한 것도 있다. 또한 ‘어엿브다, 거집’처럼 형태는 유사하나 의미가 변한 것도 있고, ‘숯다, 들케다’처럼 지금은 아예 사라진 어휘도 있다. 또한 그 사용 양상을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보아도 ‘집, 밥’처럼 다양한 문헌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어휘가 있는가 하면 ‘들깨다’처럼 아주 일부 문헌, 어떤 경우에는 한 문헌에서만 쓰이는 어휘도 있다. 물론 한 문헌에서만 확인된다고 하여 그것이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어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文證되는 어휘만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중세국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稀貴語는 중세국어 자료에서 唯一 例 또는 두세 개의 例만 확인되는 語彙를 말하는데, 이러한 어휘를 많이 찾음으로써 우리 국어의 語彙場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회귀어에 대한 연구는 그 특성상 특정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이루어졌는데, 『월인천강지곡』을 대상으로 한 남광우(1961), 『金剛經三家解』를 대상으로 한 金英培(1975), 『千字文』을 대상으로 한 孫熙河(1984)와 孫熙河(1986), 『百聯抄解』를 대상으로 한 孫熙河(1989), 『月印釋譜 25』를 대상으로 한 金英培(2005), 『諺解痘瘡集要』를 대상으로 한 장영길(2005), 『諺解臘藥症治方』을 대상으로 한 장영길(2006), 『救急方諺解』를 대상으로 한 원순옥(2003) 등이 있다. 또한 손희하(1991)에서는 『百聯抄解』, 『類合』, 『新增類合』, 『千字文』, 『訓蒙字會』에 나온 새김 어휘를 대상으로 難解語를 연구한 바 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內訓』은 女性 敎化書로 日常生活 關聯語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宮中語도 나타나고 있어 회귀어가 적지 않다. 이에 우리는 『내훈』의 회귀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말 語彙場을 擴張하는 데 一助하고자 한다.

## II. 書誌的 特徵

『내훈』은 성종의 어머니인 仁粹大妃가 婦女子의 訓育에 필요한 부분을 중국의 敎化書인 『小學』, 『烈女傳』, 『女敎』, 『明鑑』에서 뽑아 諺解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훈육서이다.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배경은 인수대비가 쓴 「內訓序」에 나와 있다.

“다슬며 어즈러우며 니러나며 敗亡호미 비록 남지니 어딜며 사오나오매 關係  
호나 또 겨지비 어딜며 사오나오매 브툼 디라 ㄱㄹ치디 아니호미 ㄴㅎ리라

<中略> 이렇시 小學烈女 女敎 明鑑이 至極 절당호며 또 明白호디 卷數 | 즈모 하 쉬이 아디 못호릴시 이네 글췌 中에 어루 조스르원 마를 取호야 닐굽 章을 밍ㄴ라 너희돌흘 주노라”<sup>1)</sup>

이 내용으로 보아 인수대비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해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간행은 인수대비의 內訓序와 尙儀 曹氏의 跋文 연대를 보면 1475년(成宗 6)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종 6년의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의 刊本을 비롯한 약간의 重刊本이 전하고 있는데, 현재 전하는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日本의 蓬左文庫에 있는 乙亥字로 된 重刊本이다. 이 책은 권2가 上下로 分冊되어 3권4책이며 1573년(宣祖 6)의 內賜記가 있다.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있는 간본은 1611년(光海君 2)에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3권3책의 중간본이다.<sup>2)</sup> 또한 1656년(孝宗 7)에 목판으로 간행된 중간본도 권1과 권3이 각각 零本으로 규장각에 있다.<sup>3)</sup> 이외에도 권1의 절반 정도만 남아 있는 吳壽烈氏 所藏의 『내훈』이 있는데, 李基文(1987)에서는 이 책이 1573년본과는 차이가 있고, 1611년본과 같은 판본의 未補正本을 본으로 삼은 듯하다고 보았다.<sup>4)</sup> 『내훈』은 1736년(영조 13)에 영조의 명으로 다시 간행된 바 있는데 영조가 쓴 ‘御製內訓小識’가 서문 뒤에 있고 권1의 首題가 ‘御製內訓’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이 책은 『御製內訓』이라고 부른다.<sup>5)</sup>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이전 간본과는 차

1) 다스리며 어지러우며 흥하며 패망하는 것이 비록 남자의 어질며 나쁜 것에 관련이 있다고는 하나 또한 여자의 어질며 나쁜 것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中略> 이렇기 때문에 『소학(小學)』, 『열녀(烈女)』, 『여교(女敎)』, 『명감(明鑑)』이 지극히 적절하고 명백하되 그 권수가 자못 많아 쉽게 알지 못할새 이 네 글 가운데 가히 중요한 말을 취하여 일곱 장을 만들어 너희에게 준다.

2) <奎 2971>, <奎 3549>, <奎 4625>, <奎 4626>, <奎 26636>이 그것이다. 1573년판은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69)에서 1611년판은 아세아문화사(1974)에서 각각 영인되었다.

3) <一叢 古 396-So25na>은 권1의 영본이고 <가람 古 396-So25n-v.3>은 권3의 영본이다.

4) 이 책의 해제는 李基文(1987)과 李基文(2006)에 있으며 후자에는 이 책의 影印本도 실려 있다. 이기문(1987)에서는 이 책이 내훈의 원간본의 모습을 재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가 있어 ‘△’이나 傍點이 나타나지 않고 漢字音도 現實化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여러 가지 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인 蓬左文庫本을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다.<sup>6)</sup>

내훈의 내용은 크게 일곱 장으로 되어있는데, 一卷이 「言行章第一」, 「孝親章第二」, 「昏禮章第三」, 二卷이 「夫婦章第四 上下」, 三卷이 「母儀章第五」, 「敦睦章第六」, 「廉儉章第七」이다. 『내훈』은 중국의 책에서 내용 일부를 골라 언해한 책이기는 하나 15세기 당시 女人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주로 拔萃하였기 때문에 日常生活에서 쓰이는 어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언해이기는 하나 한문에 해당하는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한문 원문의 ‘菹’를 보면 우리 음식인 ‘沈菜’로 언해되어 있다.<sup>7)</sup> 지금까지 『내훈』의 어휘와 관련한 연구로는 이선영(2003), 이성연(2000), 정옥란(2001) 등이 있는데, 이선영(2003)에서는 『내훈』의 회귀어와 궁중 용어를 검토하였고,<sup>8)</sup> 이성연(2000)에서는 『내훈』 권1과 『어제내훈』 권1의 어휘를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정옥란(2001)에서는 『내훈』과 『어제내훈』의 어휘를 비교하였는데 주로 어휘가 교체된 예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이선영(2003)에서는 『내훈』의 회귀어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벼룻, 걸좌, 놀잠개’처럼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되는 어휘를 같이 다루고 있어 그 어휘목록을 『내훈』의 회귀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회귀어의 해석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5) 규장각에는 <奎 1163, 1625, 2801, 3550>, <古 1149-2>, <一簣 古 396-So25nb>가 있는데 <奎 3550>은 卷1, 2만 있는 낙질본이고 <一簣 古 396-So25nb>는 卷2만 있는 영본이다. 『어제내훈』은 규장각에 있는 <古 1149-2>를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1989년 홍문각에서 간행되었다.

6) 확인된 간행 연도로는 蓬左文庫本이 가장 오래되었으나 李基文(1987)에 따르면 奎章閣本이 더 古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확인된 간행 연도를 따라 蓬左文庫本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7) 祭祀를 보아 술과 漿水和 대 그릇과 나모 그릇과 沈菜와 젓과 드러 노흐며(觀於祭祀하야 納酒漿蘆豆菹醢하며) <내훈 3:37>

8) 회귀어로 ‘간츰다, 감하다, 걸좌, 그윳金, 기우트다, 넘저이, 노노하하다, 넘곶다, 놀잠개, 물의다, 변즈, 벼룻, 싯봇기다, 억제하다, 영노하다, 좌하다’를 보았고, 궁중 관련 용어로는 ‘섭니, 水刺, 御府, 內豎, 步搖, 王靑蓋車, 進上, 才人, 後苑, 離宮’를 검토하였다.

### Ⅲ. 『內訓』의 單一語

#### (ㄱ) 다습

- (1) 親헝닐 親히 헝고 다습으란 기우로 헝면 가히 義라 니르리여(親其親而偏其假 | 면 可謂義乎아) <내훈3:24ㄴ>

‘다습’은 한문 원문의 ‘偏’에 대한 언해인데, 이 문장에서 ‘親’은 친자식을 의미하고, ‘偏’은 의붓자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습’은 이 예에서 ‘의붓아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습’은 이 경우 외에는 그 관계를 드러내는 명사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ㄱ. 獨헝히 다습子息의게 아니헝면 엇데 상넛 어미게서 다르리오(獨於假子而不爲 헝면 何以異於凡母 | 리오) <내훈3:24ㄱ>  
 ㄴ. 민손의 다습어미 민손이를 피여 <삼강행실도孝1ㄱ>

(2ㄱ)의 ‘다습子息’은 ‘假子’의 언해에 쓰이고 있으며 “의붓자식”이란 뜻이다. (2ㄴ)의 ‘다습어미’는 “의붓어머니”란 뜻이다. ‘다습’이 단독으로 쓰인 예는 『광주판 친자문』에도 “儀 다습 의(15ㄴ)”가 보이는데, 이 예에 대하여 이기문(1972:250)에서는 ‘다습아버(繼父), 다습어미(繼母)’의 ‘다습’이라고 보았다. (1)의 예만을 본다면 ‘다습’이 “의붓아들”만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습子息, 다습어미’ 등을 고려한다면 ‘다습’은 포괄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부모나 자식”의 의미를 가지는 상의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 (ㄴ) 水刺

- (3) 水刺 셔실 제 모로매 시그며 더운 믋디를 슬퍼보시며 水刺 프르거시든 감헝산 바를 무르시고(食上에 必在視寒暖之節 헝시며 食下커시는 間所膳 헝시고) <내훈1:40ㄴ>

9) ‘다습’이 상의어이고, ‘다습子息, 다습어미’ 등이 하의어가 된다.

‘水刺’는 임금께 올리는 진지, ‘御膳’을 뜻하는 궁중어이다. 이기문(1991: 156~159)에서는 ‘水刺’ 즉 ‘슈라’가 중세몽고어의 湯을 뜻하는 ‘šülen’의 차용이라고 보았다.<sup>10)</sup> ‘水刺’는 取音表記로 한문 원문의 ‘食’에 대당한다. 宮中語로 ‘슈라’가 ‘밥’을 대신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실제 15세기 언해 문헌에서 ‘밥’에 해당하는 의미로 ‘水刺’가 확인되는 것은 『내훈』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한글로 표기된 ‘슈라’는 16세기 『癸丑日記』에 나타난다.<sup>11)</sup>

### (ㄷ) 沈菜

다 아는 바와 같이 ‘沈菜’는 ‘김치’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우리나라식 한자어이다. 『내훈』에는 한문 원문의 ‘菹’의 연해로 ‘沈菜’가 쓰여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임을 보여 준다.

(4) 祭祀를 보아 술와 漿水와 대 그릇과 나모 그릇과 沈菜와 젓과 드러 노  
 ㅎ며(觀於祭祀야 納酒漿蘆豆菹醢ㅎ며) <내훈3:37>

‘沈菜’를 한글로 표기하면, ‘딤치’인데 16세기 자료에서 확인된다.<sup>12)</sup> ‘딤치’의 변화 과정을 보면 먼저 口蓋音化 과정을 겪어 ‘짐치’가 되었고 다시 ‘치’의 ‘ㅣ’가 ‘ㄷ’로 변하여 ‘짐척’이 되었다. 그런데 ‘짐척’의 ‘짐’은 ‘ㄷ’이 ‘ㅈ’으로 구개음화된 어형인데도 불구하고 ‘ㅈ’에서 ‘ㄷ’으로 ㄱ구개음화의 過度矯正을 겪어 ‘김척’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척’의 二重母音 ‘ㅣ’가 ‘ㅣ’로 변하여 ‘김치’가 되었다. 김치의 語源인 ‘沈菜’가 중세국어 문헌에 한자로 확인되는 것은 『내훈』이 唯一하다.<sup>13)</sup>

10) ‘湯’에서 ‘御膳’으로의 의미 변화는 언어 차용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11) 滷슈와 이름 쏜 마시오시니 슈라야 더욱 권ㅎ을 길히 이스오며 <계축일기下18 ㄴ>

12) 菹 딤치 조 醃菜爲菹 亦作菹 <훈몽자회中:117>

13)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沈菜’는 ‘김치’와 연관되지만 ‘沈’과 ‘菜’가 각각 독립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일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현대국어의 ‘김치’가 단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일어로 분류하였다.

## IV. 『內訓』의 派生語

## (ㄱ) 씻בות기다

- (5) 父母ㅣ 놀라 두려 씻בות 오솔 더 니표려 ㅎ더니(父母ㅣ 驚惶하야 欲洗沐加衣裳하더니) <내훈2下70ㄴ>

(5)는 “부모가 놀라 두려워하여 (딸을) 씻기고 옷을 더 입히려 하였는데”라는 의미이다. ‘씻בות기다’는 『內訓』에만 있는 말로 ‘洗沐’의 연해이다. ‘洗沐’은 ‘沐浴’과 類義語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다”란 의미이다.<sup>14)</sup> ‘씻בות기다’를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지음, 1992, 어문각)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편, 1999, 두산동아)에서는 “땀달하여 씻다”로 뜻풀이하였고 『고어사전』(남광우 편, 1997, 교학사)에서는 “씻어 땀게 하다”로, 『이조어사전』(유창돈 편, 1964, 연세대 출판부)에서는 “씻고 부시게 하다”로 뜻풀이하였다. 위 문장의 ‘니표려’가 [[넙-+-히-]-오-]-려] 구조로 사동접사 ‘-히-’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씻בות’ 역시 [[[씻-(洗)+븍-(炒)-]-이-]-어] 구조로 사동접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씻בות다”란 단어는 문증되지는 않으나 ‘-븍다’가 후행하는 단어로 ‘숫븍다’와 ‘땃븍다’를 확인할 수 있다.

- (6) ㄱ. 仙人이 그 쫌니물 어엿비 너겨 草衣로 숫בות <석보상절11:25ㄴ>  
ㄴ. 땃בות 明鏡 中 질로 그린 石屏風 <송강가사19ㄱ>

(6ㄱ)의 ‘숫בות다’는 “몹시 스치다. 몹시 문지르다”의 의미이고, (6ㄴ)의 ‘땃בות다’는 “몹시 닦다”란 뜻이다. 이 예들에서 ‘븍-’은 선행 어간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븍다”(炒)란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이 경우 ‘븍-’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접사로 볼 수 있다.

‘븍-’이 선행 성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14) 『어제내훈』에는 “父母ㅣ 놀라고 두려 목욕호고 오솔 더 니표려 ㅎ더니” <2:105ㄴ>로 나타난다.

- (7) 더위 설우매 붓닷겨 시서 브린 쓰물도 어더 먹디 묻흐야 주으리며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87>

(7)에서 ‘더위 설우매 붓닷겨’는 “심한 더위에 따른 고초에 붙여서”란 뜻인데,<sup>15)</sup> 앞의 예와는 달리 ‘붓다’가 강조의 의미가 아닌, 원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또한 ‘붓닷다’의 ‘붓-’이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의 의미로 쓰인, “형역홀 제 여러가짓 더러운 내며 붓닷근 기름니며 <두창집요下42나>”와 같은 예도 있다. 이 예에서 ‘붓닷다’는 “몹시 붓다”의 의미로, 여기에서는 ‘닷-’이 ‘씻다’의 의미가 아닌 강세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내훈』의 ‘씻붓기다’는 “몹시 씻기다”의 의미로, 어간 ‘씻-’에 강세 접사 ‘-붓-’과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나) 감ㅎ다

- (8) 水刺 브르거시든 감ㅎ산 바를 무르시고(食下커시든 間所膳ㅎ시고)  
 <내훈1:40나>

‘감ㅎ다’는 『내훈』에만 나타나는 단어인데, 한문 원문의 ‘膳’에 해당하는 말이다. ‘감ㅎ다’는 『어제내훈』에는 ‘줍습다’로 언해되어 있어 이 두 개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膳’은 ‘슈라’로 언해되기도 하였는데, 18세기 자료인 『방언유석』을 보면 ‘用膳 슈라ㅎ시다 用飯 밥 먹다’(3:1나)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ㅎ다’는 단순히 ‘먹다’의 어휘적 대우어라기 보다는 궁중어일 가능성이 있다.

‘감ㅎ다’의 해석은 古語辭典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조어사전』에서는 ‘감ㅎ다’를 ‘食事하다’로 뜻풀이하였고, 『우리말큰사전』에서는 ‘감ㅎ다’의 어원을 한자어 ‘鑑ㅎ다’로 보았으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어사전』에서는 ‘감

15) 이 의미는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6) 슈라 들으으와든 줍소오신 바를 무르시고(食下 | 어든 間所膳ㅎ시고) <어제내훈 1:33나>



하다'를 “①鑑하다”와 “②잠수시다”의 다의어로 보고 『내훈』의 뜻은 후자임을 밝히고 있다.<sup>17)</sup>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 한글로 표기된 ‘감하다’는 『내훈』에만 나타난다. 그 외는 ‘感하다’와 ‘滅하다’가 있다.

(9) 상네 아닌 일로 상네 아닌 祥瑞를 感감히실썌 <월인석보18:44>

(10) 그저고 王이며 百姓들히 正티 몬감야 사르미 목수미 滅감히야 十萬 히  
되이니 <월인석보1:47>

『내훈』의 ‘감하다’는 직관상 ‘감’이 한자어인 듯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꺠다-꺠히다[疊], 드스다-드스히다[濫], 두련다-두련히다[圓]’ 등과 같이 ‘어간+하다’ 구성도 있으므로 ‘\*감-’이란 어간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二) 좌하다

(11) 文王이 혼 번 반 좌좌히야시든 쑤 혼 번 반 좌시며 文王이 두 번 반 좌  
히야시든 쑤 두 번 반 좌터시다(文王이 一飯이어시든 亦一飯히시며 文  
王이 再飯이어시든 亦再飯히터시다) <내훈1:41>

‘좌하다’는 『내훈』에서만 문증되는 단어로 한문 원문의 ‘飯’을 언해할 때 쓰이고 있다. ‘좌하다’는 『어제내훈』에는 ‘자시다’로 나타난다.

(12) 文王이 혼 번 밥 자서든 쑤 혼 번 밥 자시며 文王이 두 번 밥 자서든  
쑤 두 번 밥 자시터시다 <어제내훈1:33>

(12)를 보면, 『내훈』에서 ‘좌하다’와 ‘좌시다’로 쓰이던 단어가 『어제내훈』에서는 ‘자시다’로 統一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좌하다’와 ‘좌시다’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좌

17) 전자 ‘鑑하다’의 예로는 18세기 문헌인 『敬信錄譯釋』에 나온, “신명을 쓰으러 외람흔 일을 감히히 하며(57)”를 들고 있다.

‘하다’의 뜻을 “좌정하여 먹다. 잡수다”로 보고 ‘좌’가 한자 ‘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분석은 ‘하다’가 일반적으로 名詞에 結合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듯하다. 그러나 앞의 ‘감하다’에서 본 것처럼, ‘좌하다’를 語幹 ‘\*좌-’와 ‘-하-’의 結合이라고 볼 수 있다. 어간 ‘좌-’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것은 ‘하소서’체 命令形 語尾 ‘-소서’와 결합한 예이다.

- (13) 安否를 묻조고 飯 좌소서 請키늘 <월인천강지곡36ㄴ>  
누버 쉬시며 甘露를 좌소서 하고 <월인석보47ㄱ>

현대국어에서는 ‘먹다’와 관련된 말로, ‘자시다, 잡수다, 잡숫다, 잡수시다’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좌하다, 좌시다’만이 文證되고 ‘잡수시다’와 관련한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 (14) 대던의셔 죽이나 즈로 권하야 잡스오라 던교 즈로 오시니 <계축일기 下18ㄴ>

(14)에서와 같이 ‘잡습다’는 17세기 초 자료에서 처음 확인된다.

## (ㄹ) 닙곳다

‘닙곳다’는 “입고자 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이다.

- (15) 오솔 주거시든 비록 닙곳디 아니하나 모로매 니버 기드리며(加之衣服  
이어시든 難不欲이나 必服而待하며) <내훈1:51ㄴ>

(15)는 “만일 옷을 주신다면 비록 입고자 아니하여도 반드시 입고 기다리며”란 뜻이다. ‘닙곳다’는 『우리말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 『고어사전』에는 登載되어 있지 않고, 『이조어사전』에는 登載되어 있으나 “欲求하다”라 뜻 풀이되어 있다. 이 단어는 문맥상 단순히 “욕구하다”의 의미보다는 “입고자 하다”란 뜻이라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 부분이 『어제내훈』에는 “오솔 주

거시든 비록 넙고저 아니으나 반드시 니버 기드리며”(1:41ㄴ)로 되어 있다. ‘넙고저’의 ‘-고저’는 意圖나 慾望을 나타내는 連結語尾이다. 『내훈』에 나오는 ‘넙곳디’의 ‘-곳-’은 八終聲法이 적용되기 이전 형태로는 ‘-곳-’일 가능성이 있고 의미상 이것이 의도나 욕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接辭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 예외에는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의 추론은 힘들다.

#### (ㄱ) 내노리하다

‘내노리하다’는 “밖으로 나가 놀다. 들놀이하다”란 의미인데, 『내훈』에만 나타난다.

(16) ㄱ. 처서의 閔王이 내노리흐샤 東郭에 가시니(初에 閔王이 出遊흐샤 至東郭흐시니) <내훈2下69ㄱ>

ㄴ. 오늘 내노리흐야 혼 聖女를 어두니(今日에 出遊흐야 得一聖女호니) <내훈2下71ㄱ>

ㄷ. 내 내노리호매 車騎ㅣ 甚히 할시(寡人이 出遊에 車騎甚衆호시) <내훈2下69ㄱ>

위에서 보면, ‘내노리하다’는 ‘出遊’의 언해에 쓰이고 있다. (16ㄷ)의 경우, 원문에 ‘出遊에’라고 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 언해를 ‘내노리에’라고 하지 않고 ‘내노리흐야’라고 동사로 언해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7세기 박인로의 가사인 「所有亭歌」에 “隔岸 漁村에 내노리 가자쁘라”란 구절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내노리하다’는 [[[내-+놀-+-이]-호]다]의 구조인 파생어로 분석할 수 있다.

#### (ㄴ) 飲食하다

(17) ㄱ. 飲食호물 모로매 삼가 먹디를 두어 흐며(飲食을 必慎節호며) <내훈1:26ㄴ>

ㄴ. 오직 生員이 大學에서 飲食호고 妻子는 올위러 사를 더 업스니(但 生員이 廩食於大學호고 而妻子는 無所仰給호니) <내훈2下:62ㄱ>

(17ㄱ)은 中國 宋의 학자인 張思叔의 열네 가지 座右銘을 기술한 부분 가운데 일부로 “음식을 먹을 때는 모름지기 삼가 마디를 두어 하며[절제하며]”란 뜻으로 ‘飲食하다’가 “음식을 먹다”란 의미로 쓰였다. (17ㄴ)은 “오직 생원이 대학에서 음식을 먹고 처자는 우리러 살 곳이 없으니”의 뜻으로 역시 ‘飲食하다’가 “음식을 먹다”의 뜻으로 쓰였다. ‘음식하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음식을 만들다”의 의미이나 여기에서는 “음식을 먹다”란 뜻이어서 특이하다.

### (八) 억세하다

(18) 그속흔 이룰 엇보다 말며 겨뵈 사르미게 억세흔 양 말며 네 아는 사르미 윈 이룰 니르디 말며(不窺密흔며 不旁狎흔며 不道舊故흔며) <내훈1:9ㄱ>

‘억세하다’는 한문 원문의 ‘狎’에 해당하는 언해로 원문의 한자나 문맥을 고려하면 “버릇없이 너무 지나치게 굴다”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 (○) 조널이

(19) 조널이 트림흔며 한숨 디흐며 츠치옴흔며 기춤흔며 하외옴흔며 기지게흔며 흥녁 발이 쳐 드되며 지혀며 빗기 보뵈 말며 조널이 춤 바타며 고프디 말며 치위도 조널이 던넵디 말며 브라와도 조널이 굶디 말며 고마온 이리 잇디 아니커든 조널이 메웻디 말며 (不敢臆噫嚙咳欠伸跛倚睇視흔며 不敢唾洩흔며 寒不敢襲흔며 癢不敢搔흔며 不有敬事 | 어든 不敢袒裼흔며 ) <내훈1:49ㄴ~50ㄱ>

(19)에는 ‘조널이’가 5회 나타나는데 다 한문 원문 ‘敢’의 언해로 쓰였다. 원문의 한자나 문맥을 고려하면 “함부로, 감히”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널이’는 『내훈』에만 나타나는 희귀어인데, 『어제내훈』에는 다 ‘敢히’로

18) 『어제내훈』에는 한자어 ‘설압하다’로 언해되어 있다. 그속흔 디룰 엇보다 아니흔며 설압흔 디 갓가이 아니흔며(不窺密흔며 不旁狎흔며) <어제내훈1:7ㄴ>

언해되어 있다.<sup>19)</sup>

부사 ‘조닐이’ 외에 ‘조너르다’란 동사도 확인된다.

(20) 물읏 보물 늑막 뇨 우회 오락면 조너르코 썩 아래 뇨리오면 시르믈  
뵈는 거시오(凡視를 上於面則敖호고 下於帶則憂이오) <번역소학4:15>

『번역소학』에 나타나는 ‘조너르다’는 ‘傲’의 언해에 쓰이고 있는데, 기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희귀어이다. ‘조너르다’로 미루어 ‘조닐이’는 ‘조너르-’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일 가능성이 있다.

#### (ㄷ) 념찌이

(21) 또 서르 조차가 이바디 會集호야 념찌이 붓그림 업거든(又相從宴集호야 靦然無愧커든) <내훈1:68>

‘념찌이’는 『내훈』에만 있는 말로, 한문 원문의 ‘靦然’에 해당한다. ‘靦然’은 “경우 없이, 뻔뻔하게”의 의미이다. ‘념찌이’가 부사이므로 ‘-이’가 부사파생접미사인 것으로 추정되나 ‘념찌-’가 무엇인지는 미상이다.<sup>20)</sup>

#### (ㄷ) 獨혀

(22) 獨혀 다습子息의게 아니호면 잇데 상넷 어의게서 다려리오(獨於假子而不爲호면 何以異於凡母ㅣ리오) <내훈3:24>

19) 敢히 피기호며 트림호며 주치옴 호며 기춤호며 하외옴 호며 기지게 해며 혼 발  
쥌드디며 지히며 빗기 보디 아니호며 敢히 춤 바드며 코프디 아니호며 치워도  
敢히 더 넘디 아니호며 ㄹ라와도 敢히 굶디 아니호며 조심홀 일이 잇디 아니커  
든 敢히 메왓디 아니호며(不敢噦噫嚏咳欠伸跛倚睞視호며 不敢唾洩호며 寒不敢  
襲호며 癢不敢搔호며 不有敬事ㅣ어든 不敢袒裼호며) <어제내훈 1:40>

20) 『어제내훈』에는 “또 서르 조차 잔치호여 모다 편편이 붓그림이 업거든”<1:55>  
으로 언해하였는데, ‘편편이’는 “뻔뻔히”란 뜻이다.

‘獨히’는 한자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어로 “특별히”를 의미하는데, 그 형성방식이 특이하다. 한문 원문의 부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한자에 접사 ‘-히’를 붙여 부사를 만든 것인데, 이러한 예로 ‘全히, 專히, 幸히’ 등도 있다.

- (23) ㄱ. 一柱 | 全히 당당이 갓가오니(一柱全應近) <두시언해14:38ㄱ>  
 ㄴ. 辛旽이 나랏 政事를 專히 자바 이서(旽專國政) <삼강행실도忠32>  
 ㄷ. 骨髓 | 幸히 머르디 아니흐엿노라(骨髓幸未枯) <두시언해6:40ㄴ>

## V. 『內訓』의 複合語

### (ㄱ) 묻값다

- (24) 여들 히를 시러 묻값디 묻히야(八年을 不得營葬히야) <내훈1:72ㄴ>

‘묻값다’는 ‘묻다’와 ‘값다’의 어간이 결합하여 된 語幹複合語로 “파묻다”란 뜻인데 『내훈』에만 나타난다. ‘값다’는 “염습하다”의 의미인 단어이다.<sup>21)</sup>

- (25) 殮 갈를 럼 <훈몽자회中17ㄱ>

시간 순서상으로는 ‘값아서 묻다’ 즉 ‘염하여 묻다’가 맞는데 이 단어는 시간 순서와 달리 ‘묻다’가 先行하는 것이 특이하다. 語幹複合語의 예는 아니지만 이처럼 시간 순서와 반대로 배열된 단어의 예로 ‘알이듣다, 몰라보다’ 등이 있다.

### (ㄴ) 질긔굳다

- (26) 석석히며 질긔구드며 方正홀시(嚴毅方正홀시) <내훈3:17ㄴ>

21) 『어제내훈』에는 “여들 히를 시러곰 민을 경령티 묻히야” <1:59ㄱ>로 되어 있다.

‘질괴굳다’도 ‘질괴-’와 ‘굳-’이 결합한 어간복합어로 한문 원문의 ‘毅’에 대하여 쓰였다. 性格과 관련하여 쓰였으므로 “굳세다. 강하다”란 의미이다. ‘질괴굳다’는 『내훈』에만 있는 단어인데, 후대에 ‘굳다’의 ‘ㄱ’이 ㅅ 아래에서 약화된 형태인 ‘질괴웁다’가 보인다.<sup>22)</sup> 『어제내훈』에는 ‘질괴굳다’가 ‘굳세다’로 언해되어 있다.<sup>23)</sup>

## (ㄷ) 붙뜨되다

- (27) 거름 거르며 붙뜨되요물 모로매 즈늑즈늑기 흐며(步履를 必安詳히며)  
 <내훈1:26ㄴ>

‘붙뜨되다’는 ‘붙다’와 ‘뜨되다’가 결합한 어간복합어이다. ‘붙-(어간)+뜨되-(어간)+-오-(선어말어미)+-ㅁ(명사형어미)+-을(조사)’의 구성이다. ‘붙다’의 어간 ‘붙-’의 終聲 ‘ㅍ’이 後行 語幹 ‘뜨되-’의 첫 音節 初聲으로 連綴되었다. 『내훈』에는 선행 어간의 종성 ‘ㅍ’이 후행 어간이나 어미의 초성으로 연결된 예가 가끔 확인된다.<sup>24)</sup>

## (ㄷ) 좇뜨되다

- (28) 그르 혼 이룰 좇뜨되여 말며(母循枉히며) <내훈1:9ㄱ>

‘좇뜨되다’는 ‘좇다’와 ‘뜨되다’의 어간이 결합하여 된 어간복합어로 『내훈』에만 나타나는데, “좇아 따라가다”란 의미이다. 손희하(1991:143)에서는 『천자문』(대동금본)에 나오는 ‘좇두드다’가 『내훈』에 나오는 ‘좇뜨되다’의 변이형태라 보고, 새김 자료 가운데 보수성이 강한 『천자문』(대동금본)에만 음운이 변화된 ‘좇두드다’가 나오고, 이 당시 다른 문헌에는 ‘좇뜨되다’에 해당하는

22) 장강하고 질괴우더 올코 고다 말스를 흐요디 <번역소학8:28ㄴ>

23) 석석히며 굳세여 方正히거늘 <어제내훈3:14ㄴ>

24) 바래 非禮엿 짜홀 붙뻔 아니히며(足不踐非禮之地히며) <내훈1:24ㄱ>

그 所任이 至極이 重하고 맞돈 이리 쉬뻔 아니히니(其任이 至重하고 負荷ㅣ不易히니) <내훈3:6ㄴ>

날말이 모두 ‘본(本)만다’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천자문』(대동금본) 간행 당시의 중앙어에서 ‘죽드되다’가 이미 死語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sup>25)</sup>

## VI. 『內訓』의 連語 構成

다음으로 『내훈』에서 특이한 것은 連語 構成이다. 일반적으로 연어는 어휘 요소들 사이의 制限的인 共起 關係를 말하는데,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연어 구성이 적지 않게 보인다.

### (ㄱ) 우롬 내다

(29) 內則에 닐오더 父母舅姑스 고대 이서 命이 잇거시든 맛골마 우롬 내스와 恭敬ᄃᆡ야 對答ᄃᆡ스오며(內則에 曰호디 在父母舅姑之所ᄃᆡ야 有命之어시든 應唯敬對ᄃᆡ며) <내훈1:49ㄴ>

(29)에서 한문 원문의 ‘應唯敬對’는 ‘맛골마 우롬 내스와 恭敬ᄃᆡ야’로 연해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롬 내다’는 ‘唯’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라고 대답하다”란 의미이다. ‘우롬’ 자체가 ‘대답’의 의미로 쓰인 예도 『내훈』 외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 (ㄴ) 마시 사오납다

(30) 后ㅣ 內官을 命ᄃᆡ샤 飲食을 가져다가 親히 맛보시니 마시 사오나와 도티 아니커늘(后ㅣ 命中官ᄃᆡ샤 取其飲食ᄃᆡ샤 親嘗之ᄃᆡ시니 滋味涼薄不ᄃᆡ어늘) <내훈2下60ㄱ>

‘사오납다’는 “나쁘다. 열등하다”란 의미의 형용사로, 현대국어 ‘사납다’의

25) 『千字文』(日本大東急記念文庫所藏本)은 1575년 이후 또는 16세기 중엽의 문헌이다. 손희하(1991:10) 참조.



古形이다. 현대국어에서 ‘사납다’가 “성질이 사납다. 인심이 사납다” 등과 같이 주로 쓰인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납다’ ⑤번 뜻을 보면, “음식물 따위가 거칠고 나쁘다.”란 뜻이 있고 그 예로 “직원들은 구내식당 밥이 사납다고 불평했다.”가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내훈』에는 ‘맛이 사오납다’란 예가 있어 특이하다.

중세국어에서 ‘맛’은 현대국어에서처럼 ‘맛’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다.

(31) ㄱ. 봄과 드룸과 마툼과 맛 아룸과 모대 다흙과 雜 뜰과 다 업스릴씨  
 <석보상절6:28ㄴ>

ㄴ. 여러 가짓 쓰며 펄본 거시 舌根에 이서 다 變호야 豆餹 마시 드  
 외야 <석보상절 19:20ㄴ>

(32) ㄱ. 처서의 사르미 찢 마술 먹다가 漸漸 粳米 머근 後에 <석보상절  
 9:19ㄴ>

ㄴ. 貴餹 차반 우 업슨 豆餹 마술 만히 노잡고(廣設珍羞 無上妙味호  
 고) <능엄경언해1:31ㄱ>

위에서 (31)은 “맛”의 의미이고, (32)는 “음식”의 의미이다. 만약 (32)를 의미의 ‘맛’인 ‘맛이 사오납다’라고 한다면 현대국어 ‘사납다’의 쓰임인 ‘밥이 사납다’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훈』의 (30) 예문은 (31)의 ‘맛’과 같은 뜻으로 “맛이 나쁘다”란 의미의 ‘맛이 사오납다’이다.<sup>26)</sup>

## (ㄷ) 羹을 고르다

(33) 밥 머글 제 羹을 고르거닐 구지저 말여 닐오디(常食絮羹이러닐 卽叱  
 止之曰호디) <내훈3:33ㄱ>

‘羹’은 “국”이고, ‘고르다’는 “조절하다”의 뜻이어서, ‘羹을 고르다’는 “국에 간

26) 『두시언해중간본』에도 ‘맛이 사납다’의 예가 나타난다. “숯마시 사오나오니(酒味薄)” <두시언해중간2:67ㄱ>

을 맞추다”란 의미를 나타낸다. ‘羹을 고르다’는 『내훈』에만 확인되는 구성이다.

(ㄷ) 水刺 서시다

- (34) 水刺 서실 제 모로매 시그며 더운 믋디를 슬퍼보시며 水刺 프르거시  
돈 감호산 바를 무르시고(食上에 必在視寒暖之節호시며 食下커시든 間  
所膳호시고) <내훈1:40ㄴ>

‘水刺’은 앞에서 보았듯이 임금께 올리는 진지, ‘御膳’을 뜻하는 궁중어이다. (34)에서 ‘食上’의 연해로 ‘水刺 서시다’가 나오는데, ‘서시다’가 음식과 관련하여 쓰이는 것은 특이한 구성이다.

(ㄹ) 病이 되다

- (35) 病이 되사매 미쳐 帝 무려 니르사더(及疾亟호샤 帝問曰호샤더) <내훈2  
下63ㄴ>

‘病이 되다’는 “병이 심해지다”란 의미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ㄴ) 흔 바를 이치다

- (36) ㄱ. 안조더 ㄴ새 아니호며 서디 흔 바를 이쳐 아니호며(坐不邊호며  
立不蹀호며) <내훈 3:9ㄴ>  
ㄴ. 조닐이 트림호며 한숨 디호며 즈치옴호며 기춤호며 하외옴호며  
기지게 호며 흔녁 발 이쳐 드되며 빗기 보물 말며(不敢噓  
噫嚙咳欠伸跛倚睇視) <내훈1:50ㄱ>

‘이치다’ 역시 『내훈』에만 나타나는 단어인데 한문 원문 ‘蹀’과 ‘跛’의 연해

로 “치우치다”를 말한다. ‘잇다’는 “이지러지다”란 의미의 동사이고, ‘치다’는 “치우치다”란 의미의 동사인데 ‘이치다’는 이 두 동사가 결합하여 된 어간복합어일 가능성이 있다. 어간 ‘잇-’에 강세 접사 ‘-치-’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15세기 문헌에서는 강세 접사가 ‘-치-’가 아니라 ‘-티-’였기 때문에<sup>27)</sup> 그럴 가능성은 稀薄하다. ‘흔 바를 이치다’ 또는 ‘흔덕 밭 이치다’ 등은 “한 발로 비둘게 서다”의 의미이다.

## VII.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내훈』의 여러 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인 蓬左文庫本을 대상으로 희귀어를 검토하였는데, 단일어로, ‘다습, 水刺, 沈菜’를, 파생어로 ‘싯뭇기다, 감흔다, 좌흔다, 닙곳다, 내노리흔다, 飮食흔다, 억쌔흔다, 조널이, 닙썰이, 獨혀’를, 복합어로 ‘묻값다, 질긔곤다, 벌쁘되다, 좇드되다’를, 연어 구성으로 ‘우름 내다, 마시 사오납다, 羹을 고르다, 水刺 서시다, 病이 되다, 흔 바를 이치다’를 검토하였다.

희귀어는 말 그대로 용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文脈에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며 語源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또한 희귀어 가운데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예도 있고 사전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뜻이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稀貴語 研究의 難點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희귀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連語 研究도 지금까지 주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세국어의 연어가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는 만큼 이것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7) ‘짓구리티다, 그치티다, 더위티다, 브스티다’ 등이 그 예이다.

◇ 參 考 文 獻 ◇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金英培(1975), 「金剛經三家解 第一에 대하여-그 稀貴語를 中心으로」, <睡蓮語文論叢> 3, 부산여대 국어교육학과, pp.147~155.
- 김영배(2005), 「『월인석보 제25』의 회귀어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회, pp.9~25.
- 김용숙(1994), 「궁중어의 이름다움, -『한중록』을 중심으로」, <한글> 226, pp.119~145.
- 南廣祐 編(1960/1997), 『古語辭典』, 教學社.
- 남광우(1961), 「월인천강지곡 상에 나타난 회귀어에 대하여」, <한글> 128, 한글학회, pp.261~268.
- 孫熙河(1984), 「『千字文』字釋 研究 - 難解語의 語義 究明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1986), 「『千字文』字釋 研究(2)」, <語文論叢> 9, 전남대학교 어문학연구회, pp.89~109.
- \_\_\_\_\_(1989), 「『百聯抄解』의 어휘미론적 고찰 - 難解語釋을 중심으로-」, <語文論叢> 10·11, 전남대학교 어문학연구회, pp.225~248.
- 손희하(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2000),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 원순옥(2003), 「『구급방언해』의 회귀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 20, 한국말글학회, pp.127~158.
- 劉昌惇 編(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 出版部.
- 李基文(1972),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pp.231~269.
- \_\_\_\_\_(1987), 「內訓에 대하여」, <奎章閣> 10, 서울大學校 奎章閣, 1~16.
- \_\_\_\_\_(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_\_\_\_\_(2006), 「古本『內訓』解題」, <韓國語研究> 3, 韓國語研究會.
- 이선영(2003), 「『내훈』의 표기법과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연(2000), 「『내훈』과 『어제내훈』의 어휘 연구」, <언어학> 8-2, 대한언어학회, pp.135~156.
- 장영길(2005), 「『診解痘瘡集要』의 희귀어 고찰」,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pp.235~252.
- \_\_\_\_\_(2006), 「『診解膿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pp.5~32.
- 정옥란(2001), 「『내훈』과 『어제내훈』의 어휘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글학회 지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 ABSTRACT

## A Study on the Rare Words of the ‘*Naehun*’

Lee, Seon-yeong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are words of ‘*Naehun*’ in Middle Korean. The rare words used only in one text or a few texts, so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rare words. Some rare words are not registered in the dictionary and other rare words have the wrong meaning in the dictionary even though they are registered in it. There are many rare words in ‘*Naehun*’, the Korean representative discipline book for women, which Insudaebi, the king Seongjong’s mother, compiled. As simple words in ‘*Naehun*’, I discussed ‘*Dasam*, *Sura*, *Chimchae*’, as derived words I discussed ‘*Sisbosgida*, *Gamhada*, *Jwahada*, *Nibgosda*, *Naenorihada*, *Eumsighada*, *Eogsdehada*, *Joneol-i*, *Neopsdeo-i*, *Doghyeo*’. As compound words I discussed ‘*Mudgarmda*, *Jilguigudda*, *Balbdeuduida*, *Josdeuduida*’, as collocations I discussed ‘*Urom Naeda*, *Masi Saonabda*, *Gaeng-eul Gorada*, *Sura Syeosida*, *Byeong-i doeda*, *Han Bral Ichida*’. The study of rare words is expected to enlarge the lexical field of Korean.

※ Key-words : *Naehun*, Rare Words, Lexical Field, Middle Korean, simple word, derived word, compound word, collocation